

공적자본 지배 은행의 대출 행태

이상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The Loan Behaviors of Public-Capital Owned Banks

Sang-Wook Lee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Korea

요약 본 연구는 공적자본 지배 여부에 따른 은행들의 대출행태 차이를 분석하고 관련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은행대출은 기업대출, 가계대출을 주된 대상으로 하였다. 기업대출은 중소기업 대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공적자본 은행들과 비공적자본 은행들 간의 대출행태의 차이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는 지를 분석하였다. 공적자본 은행은 높은 기업대출 비중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자본 은행은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공적자본 은행의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비중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 중소기업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공적자본 은행의 대출행태에 대한 새로운 논거를 제시할 뿐 아니라, 기존 공적자본 은행의 평가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본 연구 결과는 기존 연구 분야에 대한 공헌 이외에 관련 정책 당국 등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variations in the lending behavior of public-capital-owned banks. We classified bank loans into corporate loans and household loans. In addition, the corporate loans were classified into large-sized corporate loans and small and medium-sized corporate loans and household loans were classified into non-collateral loans and housing mortgage loans. We also analyzed the changes in lending behavior between public-capital-owned banks and non-public-capital-owned banks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e public-capital-owned banks showed a higher corporate loan ratio with a lower small and medium-sized corporate loan ratio. They thus showed a lower household loan ratio and housing mortgage loan ratio.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however, the lending of public-capital-owned banks showed an increase in the small and medium-sized corporate loan ratio and the housing mortgage loan ratio.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research areas of banking business and governance. This paper also gives some important insights into the public-capital-owned banks to the banking supervision authorities and policymakers.

Keywords : Bank Ownership, Public-Capital Owned Bank, Bank Corporate Governance, Bank Loan Behavior, Government Ownership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2A01037704)

이 논문은 한국은행의 재정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Sang-Wook Lee(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email: leesw@seoultech.ac.kr

Received August 25, 2021

Revised September 24, 2021

Accepted January 7, 2022

Published January 31, 2022

1. 서론

한국은 1990년 후반 외환위기 이후 은행 소유지배 구조에 많은 변화를 보여 왔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본이 투입되면서 공적자본(정부소유) 지배 은행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본 연구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면영화가 되지 않은 은행들을 공적자본 지배 은행으로 분류한다.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본 지배 은행은 1개(축협)만 감소한 반면, 공적자본 지배 은행은 3개(우리, 경남, 광주)나 증가하였다. 한편 2014년 광주, 경남은행의 민영화, 2016년 우리 은행의 민영화로 최근 들어 공적자본 지배은행의 비중은 다시 감소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공적자본 지배 은행은 6개로 전체 32개 은행의 19% 비중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은행 구조조정이 마무리 된 2006년에는 공적자본 지배 은행이 8개로 전체 18개 은행의 45%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3개 공적자본 은행의 민영화로 공적자본 지배 은행은 5개로 전체 은행 17개의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공적자본 은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은행에서 공적자본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다.

은행 소유지배 구조 관련 기존 연구들은 은행의 소유 지배 유형에 따라 은행의 대출행태가 상이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아직 기존 연구에서는 공적자본 지배 은행의 대출행태에 대한 분석 결과는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공적자본 은행의 대출행태도 다른 은행들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La porta et al.(2002)은 공적자본 은행은 개발적 관점의 긍정적 측면과 정치적 관점의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평가된다고 하였다[1]. 그들은 개발적 관점에서 공적자본 지배 은행은 경제 개발을 위해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정치적 자금의 도관 역할을 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은행의 공적자본 지배 여부에 따라 은행 대출 행태 등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본다. 공적자본 은행들의 대출행태 분석 등을 통해 공적자본 은행의 지배 확대 및 변화 등이 우리나라 은행 산업 및 대출행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적자본 지배 은행들의 대출행태 분석을 통해 공적자본 은행들의 기능 및 영향 등을 살펴볼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대출행태 분석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금융 및 경제

구조 변화에 따른 추가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은행 구조조정 이후 은행 소유지배 자본 유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공적 자본 은행의 민영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외국자본의 은행 지배 확대 등 은행 지배자본 유형 등에 대해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은행 지배자본, 대출행태 등에 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관련 선행연구 등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실증분석 모형과 결과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2. 관련 현황 및 선행연구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공적자본 은행(특별법에 의거 설립되거나, 공적자금 투입 이후 민영화 이전 단계의 은행)의 비중(은행 수 기준)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부실은행 구조조정 이후에도 대부분 공적자본 지배은행이 존속되어 왔고, 우리 금융지주의 설립은 공적자본 지배 은행의 비중 확대에 기여하였다. 외환위기 전후 공적자본 은행 비중은 19%에서 45%로 확대되었다. 한편 2014년 이후 정부의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으로 공적자본 은행은 다소 감소하였다. 우리금융지주 소속 광주은행은 2014년 5월, 경남은행은 2014년 10월, 우리은행은 2016년 11월 각각 민영은행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공적자본 은행의 비중 변화 등은 우리나라 은행의 대출행태의 변화와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은행은 소유지배 자본 유형에 따라 경영 및 대출행태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공적자본의 은행 지배 등도 은행대출 행태에 차이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Micco and Panizza(2006)는 공적자본 은행이 민영 은행과 비교해 경기 비순응적 대출행태를 보인다고 분석하였다[2]. Sapienza(2004)는 공적자본 지배 은행은 거래 기업에게 보다 저렴한 대출이자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3]. 그러나 Xiao and Zhao(2012)는 은행기업 대출관계 관점에서, 공적자본 지배 은행에 대출을 많이 의존하는 기업일수록 기업의 경영혁신 의지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4]. Berger et al.(2008)은 공적자본 은행과 주거대출관계에 있는 기업들은 경영 투명성이 낮으며, 공적자본 지배 은행은 중소기업과의 대

출판계에서 비효율적인 대출관행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5]. 또한 이상욱(2021)은 외국자본 지배 은행은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와 관련된 고용 운용이 국내 은행과 차이가 있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6].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공적자본 지배 유형에 따른 은행 대출행태 차이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다. 국내외 연구에서 공적자본 은행의 대출행태를 직접 분석한 연구결과는 없다. 해외 연구에서는 공적자본과의 은행대출 관계 관점에서 대출거래 기업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진행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은행 대출행태를 기업, 가계, 주담대, 중소기업 대출 등 다양한 형태로 세분하여 공적자본 은행의 대출행태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공적자본 은행의 대출행태 차이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공적자본 지배 은행의 기능 및 대출행태의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질 뿐 아니라, 정책 당국 등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3. 실증분석

3.1 연구모형 및 방법

본 연구는 공적자본 지배 은행 여부에 따른 대출행태 차이 분석을 위해 먼저 다음 [모형 1]을 설정한다. 은행 대출행태에 해당하는 모형의 종속변수로는 ① 기업대출비중(Clr), ② 기업대출대비 중소기업대출비중($Clmr$), ③ 가계대출비중(Dlr), ④ 가계대출대비 주택담보대출비중($Dlhr$) 4개의 변수를 이용한다. ① 기업대출비중(Clr)은 은행 대출에서 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공적자본 은행 소유지배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② 은행의 기업대출대비 중소기업대출비중($Clmr$)은 은행의 위험회피 성향과 연관성이 클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이 크거나 안전한 대출자산 운용을 선호하는 은행일수록 기업대출대비 중소기업대출비중($Clmr$)은 낮을 것이다. ③ 가계대출비중(Dlr)도 공적자본 지배 여부와 밀접할 것으로 생각된다. 안전한 대출자산 운용을 선호하는 지배구조를 가진 은행일수록 가계대출 비중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④ 가계대출대비 주택담보대출비중($Dlhr$)도 은행 소유지배 자본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다. 보수적 관점에서 안전한 대출 자산

운용을 선호하는 은행일수록 높은 주택담보대출비중($Dlhr$)을 가질 것이다.

모형의 설명변수는 공적자본 은행 소유 지배 여부를 구분하는 더미변수 Gb 이다. Gb 는 공적자본 지배은행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이다. 한편 모형의 내생성 문제 완화를 위해 모형의 설명변수는 1기 이전의 변수를 이용한다.

모형의 통제변수로는 은행 대출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은행 속성 변수(Sz , Roa , Bd),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통제할 수 있는 금융위기 여부 더미변수(Cr), 그 외 시기별 경제 및 금융환경의 변화를 통제할 수 있는 분기더미($qtdm$)를 설정하였다. 은행 속성 변수로는 은행 규모를 의미하는 은행 총자산의 로그 값(Sz), 은행의 수익성 및 경영성과를 의미하는 총자산대비 당기손익(Roa), 은행의 부실위험 변수의 대용지표로 총여신 대비고정자산 비율(Bd)을 이용한다. 금융위기 여부 더미변수(Cr)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후부터 약 1년간으로 2008년 4/4분기~2009년 3/4분기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이다.

[모형 1]

$$y(Clr, Clmr, Dlr, Dlhr)_{i,t} = \alpha_0 + \alpha_1 Gb_{i,t-1} + Z(Sz, Roa, Bd)_{i,t} \tau + \alpha_2 Cr_{i,t} \tau + qtdm_i \delta + \epsilon_{i,t}$$

y : 기업대출비중(Clr), 기업대출대비 중소기업대출비중($Clmr$), 가계대출비중(Dlr), 가계대출대비 주택담보대출비중($Dlhr$)

Gb : 공적자본 은행 더미(1기 이전 변수)

Z : 은행 속성 통제변수(Sz , Roa , Bd)

Sz : 은행 총자산의 로그 값

Roa : 총자산대비 당기손익

Bd : 총여신대비 고정이자여신 비율

Cr : 2008년 4/4분기~2009년 3/4분기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

$qtdm$: 분기더미

다음 본 연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공적자본 은행 지배 유형별 대출행태 차이를 분석한다. [모형 1]의 설명변수 Gb 이외에 각 설명변수와 금융위기 이후 더미(af)를 교차한 변수 Gb_af 를 추가한 [모형 2]을 설정한다. [모형 2]의 실증분석에서는 금융위기에 해당하는 2008년 4/4분기 ~ 2009년 3/4분기는 제외하였다.

[모형 2]

$$y(Cr, Amr, Dlr, Dhr)_{i,t} = \alpha_0 + \alpha_1 Gb_{i,t-1} + \alpha_3 Gb_af_{i,t-1} + Z(Sz, Roa, Bd)_{i,t} \tau + qtdm_t \delta + \epsilon_{i,t}$$

Gb_af 소유지배 유형과 금융위기 이후 교차더미 변수로 공적자본 은행이면서 금융위기 이후이면 1인 더미

본 연구는 2003~2017년 기간 분기별 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하우스만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변동효과와 고정효과 모형을 검증한 결과 고정효과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행별 개별 요인 통제외에 패널 자료 구성에서 존재할 수 있는 시차별 자료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시간더미(timedum)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 설정하였다.

3.2 자료 및 현황

본 연구는 은행별 분기별 대출자료와 관련 은행의 변수들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관련 자료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수하였다. 실증분석은 자료 입수 가능 범위, 금융위기 전후 분석 등을 고려하여 표본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기업대출(중소기업 대출 포함) 자료는 2003년자료부터 입수 가능하며,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포함)은 2005년부터 관련 자료가 입수 가능하였다. 공적자본 지배은행은 산업, 수출입, 기업, 농협, 수협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은행 5개로 분류하고, 나머지 은행 12개는 비공적자본 은행으로 분류하였다.

3.3 실증분석 결과

Table 1은 공적자본 지배 은행여부와 기업대출, 중소기업 대출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기업대출 비중에 대한 공적자본 은행을 나타내는 더미변수(Gb)의 추정계수가 유의한 양의 부호를 보이고 있다. 공적자본 은행은 비공적자본 은행과 비교해 기업대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적자본 은행은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공급 도관 기능으로 기업대출에 강한 면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기업대출대비 중소기업대출 비중에 대한 공적자본 은행을 나타내는 더미변수(Gb)의 추정계수는 유의한 음의 부호를 보이고 있다. 공적자본 은행은 비공적자본 은행과 비교해 중소기업대출비중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적자본 은행은 대기업대출에 집중함에 따라 낮은 중소기업 대출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적 가설에 의한 공적자본은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연관하

여 해석한다면, 공적자본 은행은 정치적 영향력이 많은 대기업 위주의 기업대출을 추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Table 1.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capital-owned banks and corporate bank loan

	Corporate Loan		S&M Corporate Loan	
	Coef.	P> t	Coef.	P> t
Gb	0.026***	(0.005)	-0.031***	(0.001)
Sz	-0.003	(0.607)	0.002	(0.771)
Roa	0.767***	(0.000)	1.442***	(0.000)
Bd	0.542***	(0.000)	0.252	(0.307)
Cr	0.043***	(0.001)	0.046***	(0.000)
Time Dummy	included		included	
Constant	included		included	
Within-R ²	0.541		0.559	
Obs.	1,261		992	

Note: 1) ***, **, * denote 1%, 5%, 10% levels of significance, respectively.

2) The P-value of two-tail test is reported in parentheses.

Table 2는 금융위기 전후 공적자본 소유은행 여부에 따른 기업대출 행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공적자본 은행과 금융위기 이후의 교차더미 변수(Gb_af)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자본 은행의 높은 기업대출 비중은 금융위기 전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 대출비중과의 공적자본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공적자본 은행과 금융위기 이후의 교차더미 변수(Gb_af)는 유의한 양의 부호를 보였다. 금융위기 이전 공적자본 은행의 낮은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개선된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2.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capital-owned banks and corporate bank loan by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Corporate Loan		S&M Corporate Loan	
	Coef.	P> t	Coef.	P> t
Gb	0.029***	(0.004)	-0.038***	(0.000)
Gb_af	-0.007	(0.166)	0.018***	(0.001)
Sz	-0.001	(0.867)	-0.001	(0.870)
Roa	0.771***	(0.000)	1.713***	(0.000)
Bd	0.571***	(0.000)	0.172	(0.516)
Time Dummy	included		included	
Constant	included		included	
Within-R ²	0.546		0.572	
Obs.	1,189		920	

Note: 1) ***, **, * denote 1%, 5%, 10% levels of significance, respectively.

2) The P-value of two-tail test is reported in parentheses.

Table 3은 공적자본 지배 은행여부와 가계대출, 주택 담보대출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가계대출과의 관계 분석에서는 공적자본 은행을 나타내는 더미변수(Gb)의 추정계수가 유의한 음의 부호를 보이고 있다. 공적자본 은행은 비 공적자본 은행과 비교해 낮은 가계대출 비중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적자본 은행에 대한 개발론적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공적자본 은행은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도관으로서 기업대출에 집중하며 경제개발과 무관한 가계대출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 주택담보대출과의 관계 분석에서는 공적자본 은행을 나타내는 더미변수(Gb)의 추정계수가 유의한 음의 부호를 보이고 있다. 공적자본 은행은 비 공적자본 은행과 비교해 낮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적자본 은행은 담보대출을 이용한 가계대출에 소극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공적자본 은행이 주택 담보를 활용한 가계대출 보다는 기업대출에 집중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capital-owned banks and household bank loan

	Household Loan		Household Mortgage	
	Coef.	P> t	Coef.	P> t
Gb	-0.035***	(0.001)	-0.094***	(0.000)
Sz	0.000	(0.986)	0.126***	(0.000)
Roa	-1.275***	(0.000)	-13.927***	(0.000)
Bd	-0.504***	(0.000)	0.850	(0.334)
Cr	-0.046***	(0.002)	-0.096***	(0.008)
Time Dummy	included		included	
Constant	included		included	
Within-R ²	0.526		0.469	
Obs.	1261		776	

Note: 1) ***, **, * denote 1%, 5%, 10% levels of significance, respectively.

2) The P-value of two-tail test is reported in parentheses.

Table 4는 금융위기 전후 공적자본 소유은행 여부에 따른 가계대출 행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공적자본 은행과 금융위기 이후의 교차더미 변수(Gb_af)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자본 은행의 낮은 가계대출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공적자본 은행과 금융위기 이후의 교차더미 변수(Gb_af)는 유의한 양의 부호를 보이고 있다. 공적자본 은행은 금융위기 이전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증가하여 비공적자본 은행과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차이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capital-owned banks and household bank loan by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Household Loan		Household Mortgage	
	Coef.	P> t	Coef.	P> t
Gb	-0.030***	(0.006)	-0.158***	(0.000)
Gb_af	-0.007	(0.181)	0.085***	(0.000)
Sz	0.001	(0.933)	0.138***	(0.000)
Roa	-1.287***	(0.000)	-14.461***	(0.000)
Bd	-0.500***	(0.000)	-1.696*	(0.074)
Time Dummy	included		included	
Constant	included		included	
Within-R ²	0.530		0.491	
Obs.	1,189		708	

Note: 1) ***, **, * denote 1%, 5%, 10% levels of significance, respectively.

2) The P-value of two-tail test is reported in parentheses.

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공적자본 지배 은행 여부에 따른 은행 대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금융위기 전후 공적자본 지배 은행들의 대출행태에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은행 대출은 원화대출대비 기업대출 비중, 기업대출대비 중소기업대출 비중, 원화대출대비 가계대출 비중, 가계대출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공적자본 지배 은행은 높은 기업대출 비중을 보이는 반면, 기업대출대비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비중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자본 은행의 높은 기업대출 비중과 낮은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은 개발 관점에서 공적자본 은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공적자본 은행이 기업대출 가운데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낮은 것은 정치적 관점의 공적자본 은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공적자본 은행은 중소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로 비 공적자본 은행과의 중소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격차를 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낮은 중소기업 대출이 줄어드는 것은 공

적자본의 순기능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낮은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공적자본 은행의 개발자본 측면의 순기능이 약화되면서 공적자본 은행의 보수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적자본 지배에 따른 은행대출에 대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공적자본 은행은 높은 기업대출에도 불구하고 낮은 중소기업대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공적자본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확대는 기업자금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공적자본 은행의 순기능을 제고할 것이다. 또한 공적자본 지배 은행은 증가추이를 보이는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함으로써 일반은행들과 차별화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적자본 은행에서 나타나는 높은 대기업대출 비중, 주택담보대출 비중 등은 공적자본 은행의 보수화 경향과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적자본 은행의 보수적 성향을 줄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은행 지배구조, 은행 대출행태 등 기존 연구에 대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은행 소유지배구조 개편, 공적자본 은행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 등 정책 당국에도 주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8.

DOI: <https://doi.org/10.1016/j.jfi.2006.11.001>

- [6] S. W. Lee, "Banking Service Automation and Employ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3, pp.. 470-475, 2021.

이 상 욱(Sang-Wook Lee)

[정회원]



- 2002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2006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1993년 3월 ~ 2008년 2월 : 한국은행
- 2008년 3월 ~ 현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금융기관경영, 회계

References

- [1] R. La porta, F. Lopez-de-silanes, and A. Shleifer, "Government Ownership of Banks", *Journal of Finance*, Vol.57, pp.265-301, 2002.
DOI: <https://doi.org/10.1111/1540-6261.00422>
- [2] A. Micco, U. Panizza, "Bank Ownership and lending behavior", *Economic Letters*, Vol. 93, No.1, pp.248-254, 2006.
DOI: <https://doi.org/10.1016/j.econlet.2006.05.009>
- [3] P. Sapienza, "The Effects of Government Ownership on Bank Lending",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72, pp. 357-385, 2004.
DOI: <https://doi.org/10.1016/j.jfineco.2002.10.002>
- [4] S. Xiao and S. Zhao, "Financial Deveolpment, Government Ownership of Banks and Firm Innov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 Finance*, Vol. 31, pp. 880-906, 2012.
DOI: <https://doi.org/10.1016/j.jimonfin.2012.01.006>
- [5] A. N. Berger, L. F. Klapper, M. S. Peria, R. Zaidi, "Bank Ownership Type and Banking Relationship", *Journal of Financial Intemediation*, Vol. 17, pp.37-62,